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5월 12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	담 당 자	• 소득작목팀 도학윤 ☎440-6925 • 담 당 자 장수영 ☎440-6926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과수농가 저온피해 발생 ‘심각’

-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과수농가 저온피해 당부, 예방·대처법 제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이상기후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배·사과나무에서 과수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배 재배 면적의 80.2%가 피해를 보았고 일부농가는 100%의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사과농가도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서는 기습 한파 및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차가운 공기 유입 차단, 풀이나 피복제 제거,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살수법 등을 활용한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으며, 안정적 영농 종사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저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과시기를 늦추어 착과여부가 확실히 된 후 적과를 실시하고, 신초유인 및 하기전정을 통한 수세안정을 도모하며(5~7월), 결실량 부족으로 수세가 강할 경우 시비량을 감량해야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라며 “기상 이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저온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기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득작목팀(☎440-6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관련 사진



<사과나무 수정이 되지 않아 도장지가 발생해 잘라주는 모습>